이용섭 시장 "공공기관 광주 우선 유치 최선 다할 것"

차담회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대비책 밝혀
문화예술·AI·에너지 융복합 역점…전남도와 상생 틀 유지

광주시가 '공공기관 이전 시즌 2'에 대비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가 아닌 광주에 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문화예술,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 도시 등 광주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하고 "대전의 경우 국가 공공연구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기존에는 혁신도시 지정을 못 받았지만 이번엔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도 마찬가지"라면서 "1차 이전 당시 전남에 지원한 결과 광주시민의 상실감이 있고, 광주도 발전해야 하니 필요한 기관은 광주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이 협력해 나주에 빛가람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2차 이전이 구체화하면 일단은 광주에 공공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시장은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력의 틀은 깨지 않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전략, 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치 대상 기관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가급적이면 전남도와 협력 관계 속에 한 목소리로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한전을 나주에 유치했을 때와 같은 협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광주·전남 상생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광주시의 주요 역점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에는 1차 이전 당시처럼 전남에 양보하는 것 보다는 광주 유치를 위해 욕심을 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이 행정 수도 이전에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최근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역시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을 150여 개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최소 100여 곳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부의 잇따른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언은 1차 지방 이전 이후에도 공공기관 중 70%가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몰려 있고, 이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수도권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인식에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맞춰 문화예술,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 도시 등 광주의 자산과 관련한 기관 유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쟁도, 이변도, 흥행도 없는 민주 전대될라

집회 축소에 컨벤션 효과 줄어
최고위원 주자들은 인지도 낮아
부동산 등 이슈에 묻혀 흥행 비상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흥행에는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19 사태로 현장 집회가 축소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당권 주자를 제외한 최고위원 주자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여성 몫으로 이미 당선이 확정된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역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관망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다.

일단 당권 및 최고위원 주자들은 이번 전대가 코로나19 사태로 '온택트' (언택트+온라인) 콘셉트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 공략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장 집회 축소로 전통적 세 몰이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위원장 지지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모 최고위원 주자 측 관계자는 "이번 전대가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결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위원장 지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권 및 최고위원 주자들은 다른 한 편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합동 연설과 TV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알리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당권 주자들을 제외한 최고위원 주자들은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누구를 찍어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최고위원 경선 본선에 진출한 주자는 신동근, 염태영,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양향자 후보 등 8명이다. 광주지역 모 대의원은 "이미 여성 몫으로 당선이 확정된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고 최고위원 주자 가운데 아는 사람도 없지만 눈길을 끄는 후보도 없다"며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 등 당 밖의 이슈가 전대 이슈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도 흥행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권 경쟁에서는 박주민 후보가 막판에 합류하면서 유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쟁도, 이변도, 흥행도 없는 전대 구도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결과적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 "보다 큰 비전과 공약으로 민심의 주목을 이끌어 내는 주자가 결국 진정한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심은 시대와 소통하며 판을 뒤흔드는 후보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60년 당원' 만난 이낙연…이재명 찾은 김부겸…박주민 언론인터뷰

민주 당권주자들 당심잡기 전력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27일 각자 차별화된 전략을 꺼내들며 당심잡기에 전력을 쏟았다.

이낙연 후보는 60년 된 평당원을 만나 밑바닥 당심을 두드렸고, 김부겸 후보는 점차 목소리를 키우는 잠룡 당원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다. 후발주자 박주민 후보는 언론 인터뷰로 존재감을 키웠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60년 동안 민주당 당원명부에 이름을 올린 윤경부(80) 원로 당원을 만나 "민주당을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 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부겸 후보는 경기로 발걸음을 옮겨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 지사는 "김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던 길을 걸었기에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했고,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따르는 국민, 도민들한테 희망의 씨앗을 계속 키워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의 교실인 안산시 단원구 '4·16 기억저장소'를 방문, "지속 가능한 안전사회와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꼭 만들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후보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정치적 상상력으로 혁신하는 면에서 이해찬 대표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책전당대회와 지역위원장대회, 국회혁신특위를 통한 일하는 국회 등 많은 아이디어를 이 대표에게 말해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연합뉴스

이인영 "대담한 변화 필요…남북의 시간에 통일부 중심될 것"

취임식 없이 업무 돌입
문대통령,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장관의 임기가 이날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자료제출 미흡 등을 비판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시방편, 임기응변 대처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취임식 생략 이유에 대해선 "바로 현안을 챙겨 보면서 필요한 여러 사안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이 장관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과연 창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내고 19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을 뜻하는 86그룹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통일부 수장으로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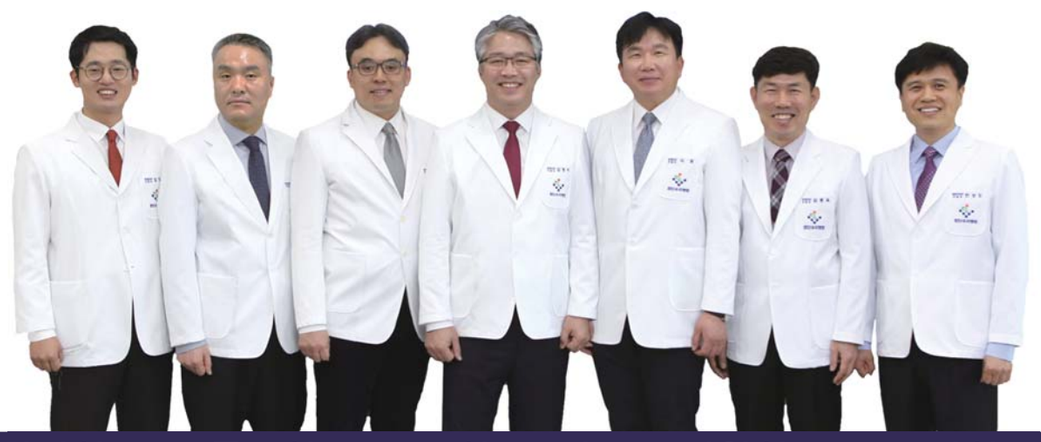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